

한화석유화학 영업이익 곤두박질

3/4분기 253억원으로 44.6% 감소 ... 삼성증권 목표주가는 9500원

한화석유화학은 2006년 3/4분기에 2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11월7일 공시했다.

한화석유화학의 3/4분기 영업이익은 2/4분기보다는 2.0% 늘어난 것이나 전년동기대비로는 44.6%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은 59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늘었고, 순이익은 46.4% 감소한 58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11월8일 한화석유화학의 3/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양호했으나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며 <보유> 의견과 목표가 95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을수 애널리스트는 “253억원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4.6% 감소한 것으로 시장평균 예상치를 17.6% 밑돈 것”이라며 예상보다 높은 원재료비 부담을 영업이익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영업이익의 부진과 달리 순이익은 586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인데 대해서는 “여천NCC를 포함한 계열사 지분법 평가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며 에틸렌 시황강세를 바탕으로 지분법 이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여천NCC의 3/4분기 순이익이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은 4/4분기에는 한화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이 나프타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3/4분기보다 양호한 33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대신 여천NCC가 10월 중순 이후 보수에 들어가면서 지분법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익지표가 혼조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주가는 10월 이후 20.5% 상승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8>